



스타벅스의 로고
비하인드 스토리

TM



**1971년에 고든 보커, 제럴드 제리 볼드윈, 지브 시글
이 3명의 사업가로부터 스타벅스는 시작되었어요.
세 사업가는 스타벅스의 로고를 만들기 위해
테리 해클러라는 디자이너를 고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커피가 굉장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를
원했던 세 명의 사업가들은 마성의 목소리를 가진 인어 '사
이렌'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다시피, 초기의 스타벅스의 로고 스케치는 인어의 지나친 노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담당 디자인 에이전시의 해클러 어소시에이츠는 그
녀에게 긴 머리를 선물하고 그 머리카락으로 상반신을 가
렸습니다. 많은 여성단체의 항의 끝에 더 풍성해진 머리카
락을 갖게 되었습니다.**



1992년 이후 약 20년 동안 사용된 로고는 2011년에 새롭게 변모됩니다. 브랜드 에이전시인 리핀코트는 스타벅스 트레이드 마크인 녹색과 인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스타벅스는 결국엔 모든 요소를 지우고 상징적 이미지 하나만 남겼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는 로고는 브랜드를 찾는 사람들과의 소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